

본문 : 레 9:22-24

대신대 15-2

제목 : 기록 : 죽음을 품어 안음

- 레 9:22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 23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 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 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들어가는 이야기

이순신의 난중일기 중에서

1597. 4. 1. 맑음 옥문을 나왔다

4. 2. 필공을 불러 붓을 매게 했다

I. 레위기 전체 조망 overview

1. 서론 introduction

- 와 이크라 : and called to life
그리고 부르셨다 **생명길로**
신 30:18 **choose life**

- 선포시기 : 성막완공 - 광야출발
출 40장 민 10:11

- 출애굽(부르심)의 목적 : **거룩한 백성**
생명의 사람들

출 19:5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렘 1: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세워 내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 가나안 : 우상의 땅
생존의 땅 : 절대 죽을 수 없는 땅

2. 목적 : 생명으로 피어나게
파괴와 생성의 영원

3. 구조 : 1장-16장 - 거룩한 제사, 17장-27장 - 거룩한 삶

1-7장	8-10장	11-16장
5대제사	제사장	정결법
제사	제사드리는 자	

- 제사장 : 죽음을 품음으로 생명의 생성누림
여호와와의 영광 나타남

레 9:6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 명령대로 하라

8-24 (그 명령대로 행함)
23 여호와와의 영광이 온백성에게 나타나매
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레 10:1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 죽은지라
3-20 (코이노니아 : 중심의 진실)

II. 죽음 the death

1. 두 가지 이해

- 죽음 — { 숙명 : 저주
해방 : 기만

2. 일체성

단편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은 따로따로이다.

그러나 삶의 존재방식이 죽음이다.
왜냐하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죽음으로 시작하고 죽음을 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이 곧 삶이다.

- Martin Heidegger -

진정 산 생명은 생사를 두 손에 같이 쥐 사람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삶도 죽음도 아니다.
삶도 죽음도 아닌고로
살 수도, 죽을 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함석헌 -

3. 구원 : 존재누리기

죽음-생명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죽음을 망각한 생활은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신의 상태에 가깝다.

- Leo Tolstoy -

- 죽음의식 : 허무한 욕망에서 자유
영원히 지켜야 할 것 같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나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것을,
더 늦기 전에 그것을 살아야 한다.

- E. Kubler Ross : 인생수업 -

- 죽음 : 고유한 나 자신됨 일깨움
독특함 never 비교적 성취
- 끌림 : not 능력
but 진정한 인간

우리의 소원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싶다!

III. 거듭남 re-born

1. 존재의 주체성 회복

- 다스림의 권세 회복
예) 프란츠 카프카의 존재회복

2. 존재의 연대성 회복

- 복의 회복 : empathy
너의 아픔 - 나의 죽음 품기

3. 열쇠 사용 : 몰입

존재의 집중 : 욕심의 반대

예) 물소와 사자

- 이완과 몰입
‘아빠’ ‘나뎠의 깊어짐’ 예) 유레카(eureka)

나누고 싶은 글

-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 중

네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탄압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 죽음의 신비 : 하나님의 섭리로 끌어안으면,

not 사수할	}	— <u>일상적 초월</u>
but 사소함		